

세속과의 인연 끊은 개미박사 이야기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개미」

가끔씩 서점에 들러보면, 책의 내용이나 줄거리 보다는 특이한 제목과 눈에 띄는 표지디자인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책이 많아졌다. 소설 「개미」도 그런 것이었다. 얼핏 겉표지를 보기에 소설이라기 보다 개미라는 곤충에 대한 전문서 같아 보였다.

도서출판 '열린책들'에서 나온 「개미」는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의해 씌어진 작품인데 실제로 작가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개미를 연구한 개미박사라는 점이 흥미를 자아낸다. 그는 실제 연구를 토대로 수십 번을 고쳐쓴 끝에 「개미」를 완성했다. 과연 작가는 개미를 소재로 하여 어떤 소설을 쓴 것일까.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자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개미박사인 에드몽 웰즈는 평생 개미연구를 하다가 어느날 세상과 벽을 쌓고 지하실로 사라진다. 그리고 몇년 후 조카인 조나탕이 삼촌이 사라진 지하실로 들어가고 그 또한 돌아오지 않는다. 남편을 찾으러 지하실로 들어간 조나탕의 아내와 아들 니콜라. 그들 또한 돌아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출하려 들어가지만 그들도 의문을 남기고 실종된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후반부에 가서야 풀린다. 에드몽의 개미에 대한 열정이 그의 사후에도 개미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카인 조나탕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지하실은 바로 인간과 개미가 접할 수 있는 접점지역이었다. 그곳에서 인간과 개미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이 마치 개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완벽하게 개미를 묘사했다. 개미들의 이름이 붙여지는 방법, 더듬이로 하는 대화, 상대방에게 자신을 알리는 페로몬 냄새, 먹이 사냥, 결혼비행, 타왕국과의 전쟁 등.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수천마리의 개미로 이루어진 거대한 개미왕국에서 개미들은 철저한 규율과 질서속에 자신의 신분에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작가는 어릴 때부터 개미연구에 몰두해 개미와 함께 생활한 개미광이지만 그의 오랜 연구와 끈질긴 열정없이 이 책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과 개미의 이야기가 반반씩을 차지하는 이 소설은 전체 3권으로 이뤄져 있다. 처음에는 개미들의 습성이나 살아가는 방식에 재미를 느꼈으나 중반부로 갈수록 같은 내용이 반복돼 지루함이 느껴졌다. 또 추리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극적 반전이나 긴박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좀더 치밀한 구성으로 추리소설의 진수까지 보였더라면 하

는 아쉬움이 남는다.

누구든지 어렸을 때 한두번쯤은 개미를 관찰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개미 몇마리 쫓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고 나면 개미 한마리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개미들은 이 소설의 작가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

양은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641번지

기형도 지음 「짧은 여행의 기록」

기형도의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살림)을 접하기 전에 나는 이미 시인 기형도를 알고 있었다.

기형도는 개성적이고 실험적인 시를 쓴 시인이며 그가 가진 시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도 전에 89년 스물아홉 살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시의 대부분은 가난했던 어린시절의 체험이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도 그 가난이 그에게 비극적 세계관을 심어준 듯하다. 그의 시가 비극적이긴 하나 절절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산문집을 접했을 때 나는 기형도의 시와 그의 비극적 생애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재미가 더했는지도 모른다.

「짧은 여행의 기록」에서는 감명보다는 기형도의 내면을 즉, 짧은 날의 불우했던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서문적인 앞부분에는 기형도의 약력인데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차례를 넘기면 이 책의 첫번째 내용물과 만나게 된다. 기형도의 누이 기애도가 이 산문집이 나오게 된 경위를 시적으로 적어놓았다. 그냥 딱딱한 산문이 아닌 시의 형식을 빌어 부드럽고 애절한 느낌을 주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기형도의 육필을 볼 수 있다. 수록된 것은 여행글인데 노트의 한부분을 발췌한 듯 하다. 그를 좀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그의 육필을 통해 그를 가깝게 느꼈다.

본문격에는 그의 여행기와 편지글, 일기형식의 참회록, 소설, 그리고 그가 기자 시절에 쓴 기사들이 엮여져 있다. 장르가 다른 장르로 넘어갈 때마다 그 장을 대표하는 부분을 발췌해 실었다. 서평이나 기사의 경우, 내용에 들

어가기 전에 생전에 그가 글을 쓰고 있는 사진도 두 페이지를 할애해서 실었다.

기형도의 작품이 다 소개된 후에 그의 문우인 원재길의 「기형도에 관한 추억」이 나온다. 이 책을 보는 사람은 기형도의 글을 보면서 그를 추억하기도 하겠지만 친구인 원재길씨가 보는 기형도의 행적과 모습 또한 새로운 추억거리가 된다. 이 책의 끝부분에는 그의 연보가 나온다. 경기도 용진군 연평도에서 태어나 종로의 파고다 극장에서 세상을 뜰 때까지의 그의 행적이 시와 함께 밝혀진다. 이로써 이 책의 제목처럼 기형도에 관한 짧은 여행을 한 셈이다. 기형도를 모르는 사람도 일단 「짧은 여행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장의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번지-1301

제임스 레드필드 지음 「천상의 예언」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목적이 없는 사회”라고도 한다. 굳이 목적이 있다면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 정도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빈곤을 가져다 주었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무시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한 결과 인간은 현재 자신들의 생활태도인 지구를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이상 기후가 바로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 「천상의 예언」의 저자는 “자본주의를 통해 구축된 물질적인 풍요가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인류 전체가 정신적인 풍요를 향해邁진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각 개인이 느끼는 동요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과 실천으로 구체화된다고 한다. 이 정후는 2천년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문명이 시작됨과 아울러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 예언한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환경보존 운동과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 고조가 그 증후증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소설은 ‘아홉개의 통찰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홉개의 통찰력이라 함은 기원전 6세기경에 씌어진 고문서의 내용이며 이 고문서가 페루의 어느 사원에서 발견된 것이다. 2천년대 초엽에 인류 전

체가 진화하는 과정이 아홉개의 통찰력으로 나타난다. 인류의 세번째 천년시대를 예언한 고문서를 사이에 두고 이 문서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페루 정부와 교단. 이들이 고문서를 추적하는 과정이 이 소설의 줄거리이다. 그리고 고문서를 찾아나선 미국인 주인공이 기관원의 추적을 피해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영적 성숙 단계인 아홉 개의 통찰력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다. 첫번째 통찰력에서부터 여덟번째 통찰력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움을 한껏 흡수한 인간의 내면세계이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의문을 던져주기도 한다.

이 소설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무서운 통찰력을 제시함으로써 2천년대를 준비하는 마음자세를 견고히 가다듬게 한다.

이정아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삼성빌라 나동 106호

김정일 지음 「나는 다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

다소 긴 제목이 눈길을 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니, 그럼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책을 잡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목 뿐만 아니라 저자명 또한 그러하다. ‘정신과 의사 김정일 지음’—그냥 ‘김정일 지음’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덧붙여져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김정일 씨가 흰 가운을 입은 채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 전면을 차지한다. 흰색의 가운, 신뢰와 권위를 표상하는 의사의 그 흰 가운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까닭과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이 책은 1부 ‘일상의 정신병리, 나는 과연 정상일까’, 2부 ‘공상속의 섹스와 현실 속의 성’, 3부 ‘성공하는 결혼과 실패하는 결혼’, 4부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난다’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현대인의 정신과 내원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에 즈음해서 현직 정신과 의사가 누구나 고심해본 적이 있는 문제,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독자에게 매력적이

지 않을 수 없다.

작자는 사람들이 언급하기 어려워 하는 성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부간의 갈등에 고심하다 가출 하던 날까지도 담담히 그리고 있다. 이는 정신과 의사는 보통 사람들과 무언가 다를 거라는 선입견을 없애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작자는 그가 대했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설같은 사연들의 리얼리티 또한 이 글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한편 작자는 프롤로그에서 말하기를, 삶의 과정들에서 느낀 것들을 주관적인 관점으로 적어 나갔다고 하였다. 한데 독자들은 그의 견해가 정신과 의사로서의 보편적인 관점이라 여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제2부의 마지막 장인 '약한 것이 약한 것이다'는 마치 단편소설과 같은 구성으로 사랑을 하려면 강해야 한다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글은 사실 실제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이 활자화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상당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

역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으로 이나미씨의 「때론 나도 미치고 싶다」가 있다. 이책도 「나는 다만...」과 비슷한 구성으로 전개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너도나도 책을 써내게 된다면 정신과 의사와 솔직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없어질 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김정일씨의 글에는 가족에 대한 애정, 소외된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진솔한 사랑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보다 성숙한 삶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문혜정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 3차 아파트 2동 1103호

전여옥 지음 「일본은 없다」

이 책 「일본은 없다」는 우리가 알고있는 일본을 여러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운을 안겨준다. 작가는 이 책의 서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만한 일본사회의 장점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의미 외에도 일본의 비도덕성과 무모한 집단이기주의 등을 통하여 그 나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느낌도 지을 수 없다.

전국의 대형서점과 「스포츠 서울」 문화부 공동 상반기 베스트셀러 집계(94. 6. 5)에 따르면, 이 책이 비소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선풍적 인기를 끌고왔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일본에서의 유행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보자”는 식의 사고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만한 내용이므로

쉽게 베스트셀러가 된 듯 싶다.

실제로 일본에서 오선화(가명)라는 여자는 자신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방하는 글을 써서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피해자와 가해자로서의 불편한 관계이고, 그 상황에 수반되는 적개심은 서로를 비방함으로써 일말의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또 두 나라의 역사적 상황은 화젯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는 일본 사회의 객관적인 모습을 묘사한 뒤 그에 따라 작가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감정전이를 느끼게 한다. 나 또한 일본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통쾌한 느낌까지도 들었다. 이 책의 내용이 안고 있는 좋은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얼마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짧은 내용의 에세이를 여러 편 묶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낸 것처럼 토막애기가 나열되는데 그것을 소단원으로 묶어내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잃은 듯하다. 종군위안부를 다루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소재의 글이라 새로움이 덜하다. 또한 한 단락의 글이 시작되는 부분마다 그림이나 기하학적인 문양을 그려넣었는데 이것은 내용과 조금도 밀착되지 않았다. 글의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일본은 없다」가 베스트셀러는 물론이고 독자들의 꾸준한 손을 타는 이유에는 표지디자인도 한몫하는 것 같다. 원색의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의 슬픈 얼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일본 여자들의 내면에 간직된 괴로움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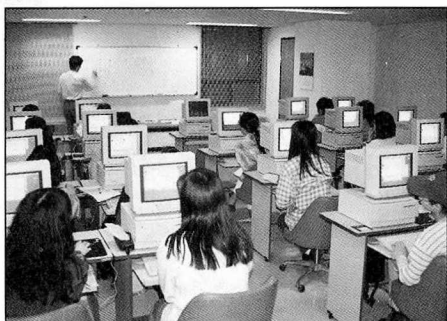
「일본은 없다」는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 무엇보다도 그들의 문화생활에 주눅들었던 내 마음을 풀어주었다. 막강해 보이는 일본의 얼굴 뒤에는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얼마전에 나는 일본 중년 남자들의 가슴이 점차 증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중년의 나이에 출퇴근시간에 지치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가정에서 충실한 가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같은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그들은 아무말도 없이 가슴을 감행한다고. 반대로 우리나라 가장들이 가슴출하는 경우를 아직 본 적이 없다. 그 점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손일경

대전직할시 중구 중촌동 70-1번지

매킨토시 DTP 전문 취업과정 부산편집아카데미

편집 전문교육 10년의 당당한 자부심
완벽한 커리큘럼과 최고의 강사진
엄격한 학사관리와 높은 취업률



6개월 정규코스 수강생 모집!

- 1시 · 4시 · 7시 각반 20명 정원
- 매킨토시 1인1대 교육후 취업알선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36. 반도빌딩 205호
전화(051)466-2034. FAX(051)466-2035

- 전자출판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고급 편집인력 양성 문제가 마침내 출판계의 중요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 전문인으로서의 긍지를 추구하는 가슴 뜨거운 젊은이들에게 부산편집아카데미의 10년 경륜이 출판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성취시켜 드리하고자 합니다.
- 편집은 직업이기에 앞서 문화창조 행위입니다.

교육 내용	주 소프트웨어	부 소프트웨어
출판기획 · 레이아웃 편집디자인 · 일러스트 그래픽디자인 · 색채학 컬러분해 · 출력 · 제판 인쇄 제작 실무 매킨토시 OS과정 등	Clarix Works Quark Xpress 3.11 Adobe Photoshop 2.5 Adobe Illustrator 5.0 Aldus Freehand 3.1	Studio 3.2 Pixel Paint Pro Swivel 3D Infini-D Strata Vision 3D

- 입학자격 / ① 고졸 이상의 남녀
② 전문대 및 대졸자 (재학생 포함)
③ 컴퓨터 초보자도 무방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원 소정양식)
- 접수기간 / (1차) 7월 31일 (2차) 8월 10일
- 입학문의 / (051) 466-2034